

#### (4) 순천농민대회연합회 활동

전술한 바와 같이 순천에서는 1922년 12월부터 이듬해에 걸쳐 대 지주투쟁과 소작인조합의 조직화가 진전되어, 1923년 2월 11일 순천면과 서면의 농민대회 간부가 중심적인 발기인이 되고(8명 중 5명) 순천군 13개 면의 대표 66명이 참가하여 순천농민대회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의 결의사항은 알 수 없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순천군이 각 면 소작인의 요구를 청취할 때 소작인들은 서면농민대회의 요구사항인 “소작료는 총수확의 4할 이내로 할 것, 지세·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 두량은 공평을 기하기 위해 4각 두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발표하였다.

그외에도 순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순천의 농민대회에서는 토산물 장려 및 금주금연운동(서면·순천면·별량면·송광면 농민대회)을 전개했다. 서면대회에서는 가능한 한 토산 목면포(木棉布)의 흑색옷을 장려할 것, 소비절약을 위해 금주금연을 단행할 것 등을 결의했다.

둘째, 농사개량에 대해 결의(쌍암면·순천면·별량면·송광면농민대회)했는데, 1923년 4월 순천면농민대회에서는 종자선택과 농구개량에 주의할 것, 비료개량을 위해 두렁에 콩을 심거나 자운영을 파종하도록 장려할 것 등을 결의했다.

셋째, 땅이 없는 농민들에 대해서 결의(서면·송광면농민대회)했는데, 서면에서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현재 땅이 없는 농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주어 생활할 길을 터줄 것을 결의했다. 전라남도에는 자기명의로 소작토지를 얻어 다시 이를 전대하는 중간소작이 많았으나, 순천에서는 이러한 중간소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의는 자기의 소작지를 무토지농민에게 나누어주어 무토지농민을 포함한 투쟁체계를 갖추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은 결의는 연합회발기인이기도 했던 순천면의 이영민(李榮珉 : 동아일보 기자)·이창수(李昌洙 : 동아일보 순천지국장), 서면의 김기수(金基洙)·박병두(朴炳斗)가 중심으로 활약하고 순천군 농민운동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순천군의 농민대회 연합회의 창립총회에 순천군의 권업과장 남연학과 경찰서장 암정(岩井)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지주의 횡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순천군 동초면과 보성군 별교의 소작인상조회 창립대회만은 경찰의 엄중한 경계와 간섭 가운데 우호적으로 치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천과 보성에서는 일본인지주가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 지역에서는 지독한 탄압을 가하는 것이 일본제국주의의 기본자세였던 것이다.

1920년도에서 1924년 전반기까지 순천지역의 농민운동은 민족주의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양쪽 모두의 투쟁방법이나 요구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이 시기 순천지역의 소작쟁의는 지주에 대한 계급투쟁과 농사개량 및 민족의식의 고취에 따른 항일독립운동 역량의 배양이 결합된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 참고자료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사』, 한길사, 1984.

강동진, 『한국농업의 역사』, 한길사, 1984.

광주일보사, 『황주·전남 100년 연표』, 1983.

- 권태섭, 『조선경제의 기본구조』, 1949.
- 김병무, 『남도농업사』, 『탐도문화연구』 제5집, 순천대, 1994.
- 김병하, 『한국농업경영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 상·하, 일조각, 1984.
- 김준보, 『한국자본주의사 연구』 I·II·III, 일조각, 1982.
- 大和和明, 『1920년대 전반기의 한국 농민운동』, 『항일농민운동』, 동녘, 1984.
- 梶村秀樹 외, 『한국근대경제사 연구』, 사계절, 1983.
-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1988.
- 박근창, 『통업경제학』, 일조각, 1989.
- 백남운 저·박광순 역, 『조선사회경제사』, 범우사, 1989.
- 승주군사편찬위원회, 『승주군사』, 1985.
-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조선총독부, 1944.
- 장동섭·구자옥, 『천남농업의 식산』, 전라남도, 1985.
- 전라남도농촌진흥원, 『천남농촌진흥사』, 1994.
-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농산물 식산편, 1983.
- 전석담, 『조선사회경제사 연구』, 박문출판사, 1949.
- 전석담·최윤구 외, 『조선근대 사회경제사-19세기말~일제통치말기의 조선사회경제사-』, 이성과 현실, 1989.
- 조선농회,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附錄 1944.
- 조선총독부, 『朝鮮の物産』, 1927.
- 조선총독부, 『朝鮮の小作慣行』上卷, 1932.
-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3.
- 조선총독부 농림국, 『朝鮮の農業』, 1936.
- 주봉규, 『한국농업경제사』, 선진문화사, 1992.
- 주봉규, 『한국농업경제사연구』, 1990.
- 淺田喬二 外 7人, 『抗日農民運動 研究』, 동녘, 1984.
- 片岡謙, 『여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片岡商店發行, 193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90.
- 허상만, 『순천지역 농업발달의 사적 고찰(상)』, 『탐도문화연구』 제1집, 순천대, 1985.